

현안과 과제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 2012년 3/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6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7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8

Executive Summary

□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종합 평가)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큰 폭 상승하여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32.1로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남북 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도 37.7로 전기 대비 13.6p 대폭 상승함에 따라 2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가깝게 진입되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이 없었고, 6.28 경제관리조치 등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2/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가 2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등하였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27.2로 2011년 3분기부터 40.0 -31.9 -18.6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둘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대폭 상승하였다.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도 24.1에서 37.7로 13.6p로 상승했고, 한반도 평화지수 및 전문가 평가지수와 함께 2분기 만에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력 도발이 없었고,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의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류지수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36.9에서 37.7로 0.8p 상승하여 전 분기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2분기 : 4억 3천여 달러→2012년 2분기 : 4억 7천여 달러)

넷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격차가 감소하여, 현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향상되었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객관적 실적치인 정량분석지수의 격차는 9.8p로 전 분기 20.9p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감소되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 분기 18.6에서 27.2로 8.6p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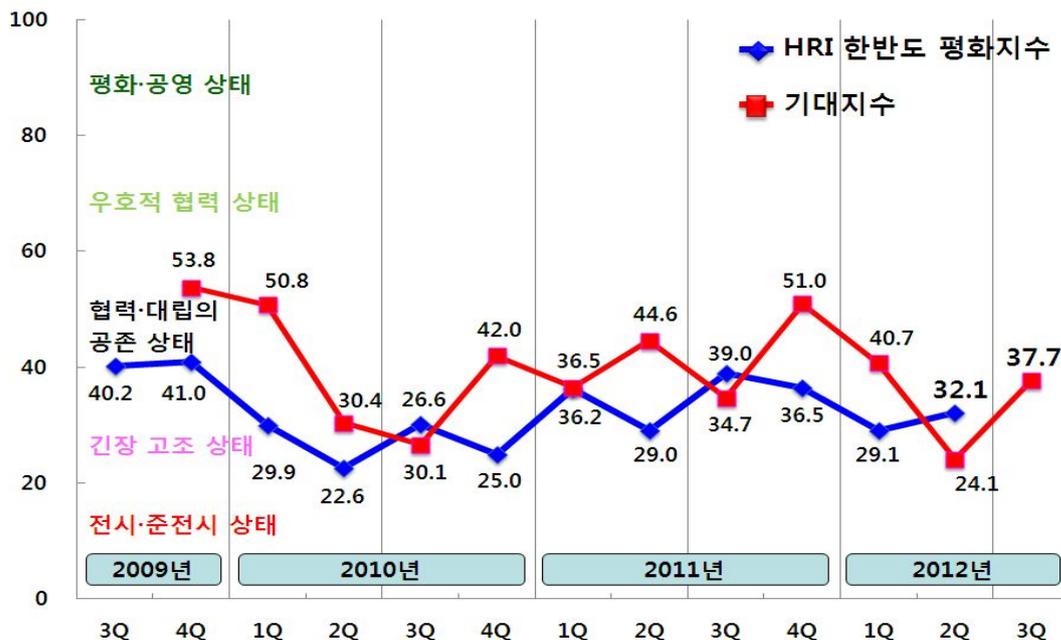
다섯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4분기 평가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의 경우, 보수 성향의 상승폭은 각각 12.2p, 19.1p로 진보 성향의 5.0p, 6.2p에 비해 약 2~3배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미 공조체제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2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 조사 결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추가 무력 도발이 없었고 6.28 경제 관리조치 등 개혁·개방의 기대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3.0p, 13.6p 상승세를 나타냄

-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32.1을 기록하여 남북 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29.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3.0p 소폭 상승한 32.1을 나타냄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섬
- 기대지수도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문가들의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3.6p 큰 폭으로 상승한 37.7로 나타나 남북관계는 2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09~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대폭 상승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의 18.6보다 8.6p 상승한 27.2를 기록, 정량분석지수는 37.0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2.5p 소폭 하락
 - 지난 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전문가 평가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이 없음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의 하락세에서 반전하여 큰 폭으로 상승,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한편, 6.28 경제개선조치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하려는 조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감소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9.8p로, 지난 분기 20.9p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감소
 -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분기의 18.6에서 27.2로 8.6p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

< 2010~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5 (▽14.9)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10.9	34.4	33.3	35.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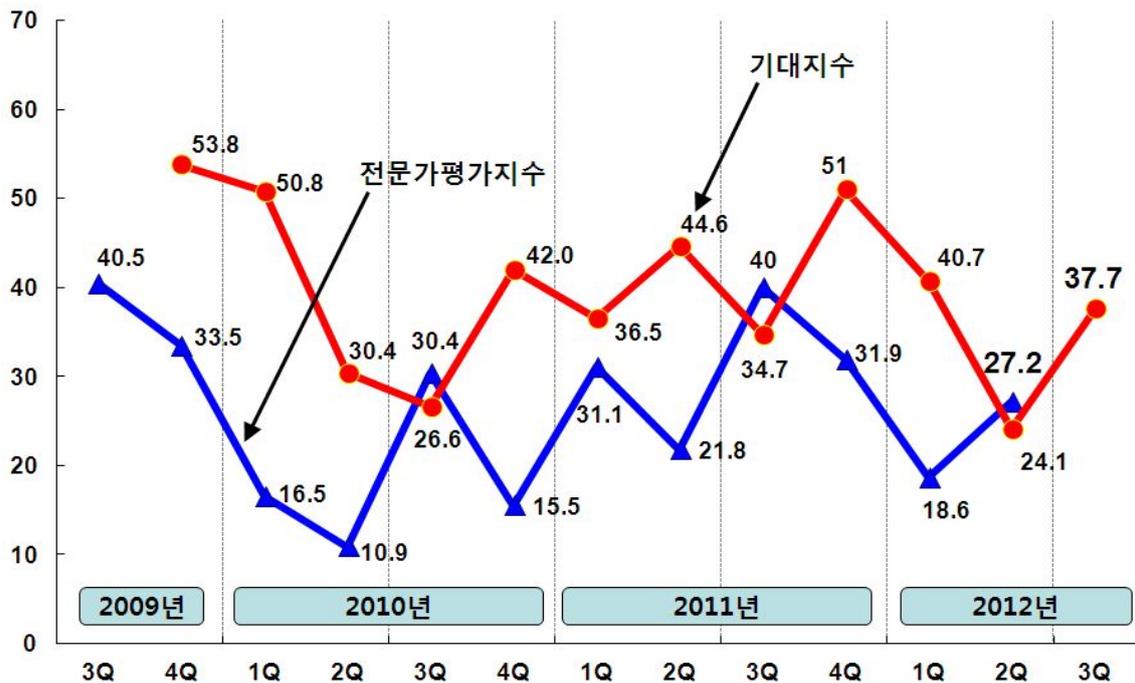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긴장 고조 상태'로 개선되었으며, 실적에 기초한 교류지수도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1) 전문가평가지수 (2012년 1분기 : 18.6 → 2012년 2분기 : 27.2)

- 총 112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전시·준전시' 상태를 벗어나 '긴장 고조 상태'의 초기 수준으로 진입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6p 상승한 27.2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평가지수는 2011년 3분기부터 40.0→31.9→18.6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을 보여줌
-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3.6p 상승한 37.7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2년 3/4분기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대폭 상승
-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력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 가시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2009~2012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2년 1/4분기 : 39.5 → 2012년 2/4분기 : 37.0)

-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5보다 2.5p 하락한 3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분야의 '교류 지수가 0.8p 소폭 상승한 반면,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 지수가 5.7p 하락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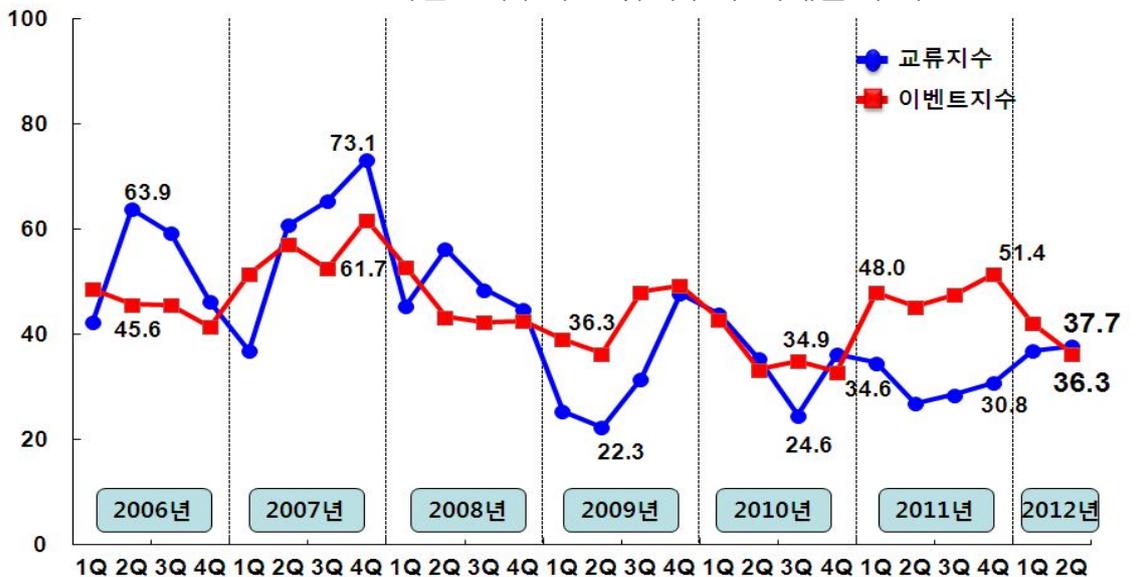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2년 1/4분기 : 42.0 → 2012년 2/4분기 : 36.3)

-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5.7p 하락한 36.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 (2011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세)
- 특히 '최고 존엄 모독'과 관련한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 등 긴장고조 사건 지속으로 하락세 유지

② 교류지수 (2012년 1/4분기 : 36.9 → 2012년 2/4분기 : 37.7)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0.8p 상승한 37.7을 기록하여 전기의 상승세를 유지
- 교류지수의 상승은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것에 기인 (2011년 2분기 : 4억 3천여 달러→2012년 2분기 : 4억 7천여 달러)

< 2006~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가 크게 호전되었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남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0.1, 29.5, 26.1로 나타나 서로 4.0p 내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냄
 - 전문가 평가지수는 성향을 떠나 10p 내외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지난 분기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
- 성향별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 성향의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다른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보수 성향의 2/4분기 평가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의 상승폭은 각각 12.2p, 19.1p로, 이는 진보 성향의 5.0p, 6.2p에 비해 약 2~3배에 달함
 -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미 공조체제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36.2 (▲11.2)	44.6 (▲8.1)
'10 4분기	14.4 (▽19.2)	32.3 (▽14.4)	24.2 (▽6.1)	41.5 (▲0.7)	10.4 (▽19.0)	35.3 (▽3.4)	15.5 (▽14.9)	25.0 (▽5.1)	36.5 (▽5.5)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30.1 (▲7.5)	42.0 (▲15.4)
'10 2분기	13.0	31.0	9.5	22.4	10.8	29.4	10.9	22.6	26.6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1.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2년 8월 8일~20일 (12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112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pm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7	52.7
2. 그렇지 않다	47.3	39.2
3. 보통이다	24.1	6.8
4. 그렇다	0.9	1.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6	54.1
2. 그렇지 않다	49.1	39.2
3. 보통이다	24.1	5.4
4. 그렇다	7.1	0
5. 매우 그렇다	0	1.4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1	37.8
2. 그렇지 않다	22.3	44.6
3. 보통이다	42.9	13.5
4. 그렇다	27.7	0
5. 매우 그렇다	0	4.1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9	2.7
2. 그렇지 않다	11.6	20.3
3. 보통이다	33.9	40.5
4. 그렇다	51.8	33.8
5. 매우 그렇다	1.8	2.7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2.3	45.9
2. 그렇지 않다	50.9	48.6
3. 보통이다	25.0	5.4
4. 그렇다	1.8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6	31.1
2. 그렇지 않다	43.8	48.6
3. 보통이다	31.3	18.9
4. 그렇다	13.4	1.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2	31.1
2. 그렇지 않다	46.4	52.7
3. 보통이다	29.5	16.2
4. 그렇다	0.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9	10.8
2. 그렇지 않다	22.3	36.5
3. 보통이다	28.6	35.1
4. 그렇다	43.8	17.6
5. 매우 그렇다	4.5	0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	20.3
2. 그렇지 않다	20.5	50.0
3. 보통이다	50.0	25.7
4. 그렇다	26.8	4.1
5. 매우 그렇다	0.9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	18.9
2. 그렇지 않다	36.6	47.3
3. 보통이다	47.3	28.4
4. 그렇다	13.4	5.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1.4	31.1
2. 그렇지 않다	47.3	58.1
3. 보통이다	13.4	10.8
4. 그렇다	0.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9	27.0
2. 그렇지 않다	41.1	41.9
3. 보통이다	35.7	29.7
4. 그렇다	14.3	1.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7	37.8
2. 그렇지 않다	49.1	48.6
3. 보통이다	23.2	13.5
4. 그렇다	0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2	44.6
2. 그렇지 않다	58.9	50.0
3. 보통이다	25.0	5.4
4. 그렇다	0.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0	36.5
2. 그렇지 않다	46.4	48.6
3. 보통이다	24.1	14.9
4. 그렇다	4.5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2	40.5
2. 그렇지 않다	53.6	50.0
3. 보통이다	22.3	9.5
4. 그렇다	0.9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2분기(%)	1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6	29.7
2. 그렇지 않다	40.2	47.3
3. 보통이다	32.1	20.3
4. 그렇다	16.1	2.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